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이재명 정부 의지 보여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나로우주센터에 우뚝 선 누리호 25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대선후보 공약 불구 국정과제 미반영
탈탄소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맞닿아
전남·경남 12개 시·군 연계협력 속원
道 “균형 발전·동서 화합 모델” 강조
정부, 내년 초 유치 의사 표명 주목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모멘텀이 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데다, 대선 공약에도 'COP35 유치'를 명시한 만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동권 유치 방침을 밝히고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당시 환경·산업 분야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로 COP33 유치를 명시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COP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논의·결정하는 최고 의사 기구다. 198개 당사국에서 5만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5개 대륙을 순회하며 매년 열린다.

COP33은 오는 2028년 말 아시아·태평양 대륙에서 열릴 차라다. 개최국은 내년 말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COP31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2개국 이상이 유치를 희망해 합의가 불발될 경우 2027년 COP32에서 국가 간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2023년 인도가 COP33 유치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 유치를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OP33 유지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기후 에너지환경부가 국제행사 개최지예서를 기피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기피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가 COP33 국내 유치 의향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COP 유치에 공을 들여온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모델 제시 비전을 앞세워 COP33 국내 유치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권권 개최도시 선정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COP33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 실무 T/F팀 구성(2022년 8월),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전담-경남 상생발전 협약 체결(2023년 4월), 남해안 남중권 유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023년6~12월),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COP33 공동 유치 협력 방안 논의(2024년 3월), 유치지원 조례 제정(2025년 6월) 등을 추진해왔다.

남해안 남중권은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과 경남 서부권의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등 12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탐사르 습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보성 갯벌 등 다양한 기후특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동시에 국내 최대 석유화학 국가산단, 포스코, 화력 발전소가 있는 온실가스 다량배출 지역이다.

남해안 남중권 COP33 공동 유치는 전남·경남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향후 지자체간 연계 협력 사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한 열악한 남해안 남중권의 지역 경제력 규모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준비 완료”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다운’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기립

발사 시각 오늘 오후 최종 결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을 완료하고 4차 발사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발사 시각은 28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관련기사 5면

▶ 관련기사 5면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이날 오후 1시36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무인특수 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을 출발, 발사대로 향했다.

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40분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께 비 예보로 인해 일정이

1시간20분 지연됐다. 오전 9시 종합조립동을 출발한 누리호는 약 1시간42분에 걸쳐 18km를 이동해 제2발사대까지 이동했다. 이어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 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루는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고정장치(VHD)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됐다. VHD 장치의 누리호 발사 직전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하면 고정을 해제하게 된다.

발사대에 고정된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umbilical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항우연은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25일 늦게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26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

진한다는 게 항우연의 설명이다. 누리호 4차 발사 시각이 27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어 26일 오전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체 충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Today

면허시험장 준공 지연...시민 불편지속 6면

장갑수와함께 걷는길-해남 달마산임도 14면

KIA 조용한 스토브리그...왜? 16면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전라남도

전남아이톡

도 지원사업 신청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예약까지
전남의 원스톱 육아행정

'전남아이톡' 핵심 기능

- ✓ 국가·도·시군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확인(300여개)
- ✓ 온라인으로 도 지원사업(9종) 직접 신청
- ✓ 강진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및 강면료 지원 신청

2026년에는?

- ✓ 도내 모든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시스템 구축 예정!
※ 2월 내 5개소(해남(1호점), 완도(3호점), 나주(4호점), 광양(6호점), 여수(8호점)) 조기 구축
- ✓ 시군별 자체 지원사업 신청 기능도 확대 예정!

'전남아이톡' 접속 방법

- 방법 1 검색창에 '전남아이톡'을 검색
- 방법 2 사이트 바로 접속 URL
(<https://italk.jeonnam.go.kr>)
- 방법 3 모바일앱에서 다운로드

iOS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스토어